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 연구

지상현 · 류예린[1)]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보수주의 등을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최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의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고, 이를 활용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는 (단편적인 지표가 아닌)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등급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 내부 및 외부의 강도 높은 감시와 통제로 인해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함께 활용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기업지배구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1) 백석대학교, 조교수.

2)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Volatility of Book-Tax Difference

Ji, Sang-hyun · Ryu, Ye-rin

〈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was measured by the volatility of Book-Tax Differenc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has relevance with the volatility of Book-Tax Difference.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listed corporate, consist of 1,875 observations are collected from 2008 to 2010 at TS-2000.

The result of this study's is as follows. The Corporate Governance have a negative relevance with the volatility of Book-Tax Difference. And these results were supported by additional analysis was considered of Firm' s size could influence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So we can expect that Corporate Governance can have a effect to reduce firm' s earnings management. Because good Corporate Governance are very useful to enhanc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his study, we should consider how to make good Corporate Governance as much as possible in Firms .

This study can contribute the field of accounting research by using new proxy of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the volatility of Book-Tax Difference. And our study can expand prior studies on Corporate Governance. But this study can have some limitations at application of result analysis because of tax income' s estimation. So we think this study need a follow-up study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 Corporate Governance, the Volatility of Book-Tax Difference.

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를 크게 바꿔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왕적 경영으로 인한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 권리의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2년 기업지배구조센터(現한국기업지배구조원,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GS)를 설립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매년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 공표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 및 기업 오너(owner)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에는 주총 간소화, 간이 및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우려되는 상당수 규정을 담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이 발의되었다.[3] 그러나 이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대부분 규정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향후 사업재편과 관련된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개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지배구조의 심각한 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주주총회 관련 절차 기간을 일괄적으로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윤승영과 정재규 2015).[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키고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다시

---

1)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CA)가 2년마다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CG Watch 2014>에서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계5위,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최하위(11개국 중 8위)로 발표했다.

2) 특히 최근 2015년 7월의 국내 5대 그룹인 A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A그룹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율은 2.7%밖에 안 되지만 이들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국내 11개 대기업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 459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그룹의 지배구조가 경영권 분쟁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사태가 커지자 오너일가는 A기업 상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3) 이 법안에 따르면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해소나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소관부처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주요국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은 독일 30일, 호주 28일, 영국 21일이다.

한 번 기업지배구조에 주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의 질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보수주의 수준 등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나 아직까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관련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윤경과 김영철(2012)에서 제시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에 주목하였다.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 내부 및 외부의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작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및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 내부 및 외부의 강력한 감시와 통제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이익을 산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다시금 크게 부각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회계이익의 질 측면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분석에 활용함에 있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을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이를 엄밀히 구분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상정하는 광의의 해석이 있고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해석이 있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5] 이 원칙의 핵심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세우되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양해각서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못박았으며, 세계은행(IBRD)은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정부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위한 기술차관 명목으로 4800만달러 차관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45만달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용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사외이사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집단소송제, 대표소송제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매일경제, 2014).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정보의 질, 이익조정, 그리고 기업가치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국내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을 공시한 이후에는 이를 활용한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다음은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이익의 질 및 회계처리방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6] 먼저, 국외연구로, Dechow et al.(1996)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성 및 재무전문성과 이익조정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사외이사비율과 분식회계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Peasnell et al.(1998)은 사외이사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음(-)의 관련성 보고하였다. Klein(2002)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의 수준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 박종일(2003)은 최대주주지분율과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김문태(2004)는 외국인지분율과 이익관리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면서,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경영자의 양(+)의 이익조정 유인을 억제함을 보고하였다. 이효익과 문상혁(2004)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활동성이 높을수록, 사외이사수를 증권거래법에

5) 단적인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6년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99년에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6) 기업지배구조 관련 선행연구는 이균봉 등(2012b)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서 정한 최소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할수록,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및 활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전규안 등(2004)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전문성이 높거나 규모가 큰 경우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김정옥과 배길수(2006)은 부채비율 및 외국인지분율과 보수주의 간의 양(+)의 관련성 보고하였다. 최현돌과 윤재원(2006)은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수준, 공시수준, 그리고 외국인지분율과 회계정보의 보수성의 양(+)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승태와 이윤원(2008)은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그리고 부채비율과 보수주의 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강주훈(2010)은 기업지배구조등급을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회계처리에 보수적 성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고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

회계이익(accounting income)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을 말한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세법에 근거하여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소득(결손)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이익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과세소득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법의 차이로 인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사적인 이득을 얻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이익조정 분야의 연구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확한 이익조정 측정치 개발이었다. 측정치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측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발생액 대신 경영성과(순이익, 현금흐름 등)의 분포도를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탐지하는 방법과 특정 산업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발생항목에 한정하여 이익조정을 연구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재무회계와 세법 간의 근본 목적 차이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재무회계가 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있다(이균봉 등 2012a). 실제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회계이익의 질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서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7] 먼저, 국외 연구로 Phillips et al.(2003)은 세법에 비해 기업회계기준 하

7)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관련 선행연구는 이균봉 등(2012a)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에서 경영자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영자가 발생액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면 회계이익- 과세소득 간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비용(deffered tax expanse)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8] 국내 연구로 전규안과 박종일(2002)은 이연법인세정보가 경영자 이익조정의 여부를 탐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보고하였다. 박종일과 김경호(2002)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이익조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주인기 등(2005)은 이익조정 측정치로서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유용성을 검증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이익조정 측정치로 유용하며, 특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가 유용함을 보고하였다. 김문태과 위준복(2005)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와 이익관리변수는 양(+)의 관련성이 있으며, 이익관리와 법인세부담액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제시하였다. 권순창 등(2007)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전체 차이,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그리고 재량적 일시적 차이가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윤성만 등(2009)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재량적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경영자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탐지함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당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는 특정 연도의 상황을 반영하는 한정된 정보인데 반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매 기간마다 다를 수 있는데 특정 연도의 정보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재량권 남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무회계-세법의 기계적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는 이와 같은 재무회계-세법의 기계적 차이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이윤경과 김영철 2012). 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첫째, 일정기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매 기간마다 다를 수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시계열적인 속성을 반영하므로, 특정 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보다 미래의 경영자행동과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주로 기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면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주로 이익조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는 곧 반전현상을 수반하므로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변동이 크다는 것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정보에 불확실성이 높음을

8) 이외에도 Mills and Newberry(2001), Phillips et al.(2003) 등의 국외연구가 있다.

알려주는 신호(sign)가 될 수 있다(이균봉 등 2014).

지금까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윤경과 김영철(2012)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클수록 내재자본비용 및 타인자본비용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균봉 등(2014)은 기업의 소유구조 중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2.3 가설설정

회계(Accounting)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외부이용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정보이용자들은 그들이 이용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회계정보시스템의 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공시제도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의 기업지배구조가 그와 같은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최현돌과 윤재원 2006).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엄격한 감시 및 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업경영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높다. 둘째, 지배주주와 독립된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1인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셋째, 기업 내외의 감사기구가 활성화 되어 있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높고 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낮고 회계이익의 질이 높으며,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반시장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행태를 볼 때 과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기업의 회계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실증적 답을 구하고자 새로운 회계(이익)정보의 질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효과 및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등급을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의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회

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 정보를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한다. 만약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일부가 이익조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는 곧 반전현상을 수반하므로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면 상대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은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작을 것이다.

Ⅲ. 표본선정 및 연구설계

3.1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다.

① 12월 결산법인
②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상장기업
③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재무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업
④ 법인세부담액이 양(+)인 기업

요건①은 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요건②는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할 수 있어 타 업종과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요건③과 요건④는 자료원에 관한 사항으로, 요건④는 과세소득 추정 시 추정오차를 나타내는 표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의 측정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9], 표본의 극단치로 인해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연구모형의 주요 설명변수 값이 각각 양끝 평균 ±3(표준편차) 범위 밖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표본에 포함된 기업-연도는

9)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과거 3년 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함에 따라 2007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1,827개이다.

다음 표-1은 본 연구의 표본선정 과정을 요약한 표이다.

<표-1> 연구표본의 선정 및 결과

2007～2010년 한국증권거래소 12월 상장 非금융업 중 법인세비용 자료 수집 가능 기업	2,493
(제외): 재무정보를 얻을 수 없는 기업	-253
극단치[평균 ±3(표준편차)]	-367
최종 연구표본 수	1,875

3.2 연구설계

3.2.1 연구모형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회계정보의 질 측정치로서 그 신뢰성이 있는 지를 첫 번째 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의 유용성이 입증되면, 두 번째 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다.

(1)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관련성 연구모형

(모형-1) 재량적 발생액$(KDA)_{i,t}$

$$= \alpha_1 + \beta_1 \text{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text{-}BTD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CFO_{i,t} + \beta_5 OWN_{i,t} + \beta_6 FOR_{i,t} + \beta_7 OD_{i,t} + \beta_8 DCF_{i,t}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_{i,t}$$

모형-1은 본 연구의 기본가정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회계(이익)정보의 질 대리변수로 유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정Jones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performance matched)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산출한다.

Kothari et al.(2005)은 다음과 같이 수정Jones모형에 상수항을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경영성과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이익률(ROA)을 포함하여 추정하는 성과대응(performance matched) 재량적 발생액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모형에 근거한 재량적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지상현 2013).

$$\frac{TA_{i,t}}{A_{i,t-1}} = \beta_0 + \beta_1(\frac{1}{A_{i,t-1}}) + \beta_2(\frac{\triangle REV_{i,t} - \triangle REC_{i,t}}{A_{i,t-1}}) + \beta_3(\frac{PPE_{i,t}}{A_{i,t-1}}) + \beta_4 ROA_{i,t-1} + \epsilon_{i,t}$$

$$\frac{DA_{i,t}}{A_{i,t-1}} = \frac{TA_{i,t}}{A_{i,t-1}} - [\hat{\beta_0} + \hat{\beta_1}(\frac{1}{A_{i,t-1}}) + \hat{\beta_2}(\frac{\triangle REV_{i,t} - \triangle REC_{i,t}}{A_{i,t-1}}) + \hat{\beta_3}(\frac{PPE_{i,t}}{A_{i,t-1}}) + \hat{\beta_4} ROA_{i,t-1}]$$

$ROA_{i,t-1}$ = (t-1)기의 총자산수익률 = (t-1)기의 당기순이익/(t-2)기말의 자산총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주로 이익조정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반드시 반전현상을 수반하므로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모형-1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먼저, 재량적 발생액(KDA)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 간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T-test를 통해 검증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회귀모형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β_1>0)을 갖는다면 본 연구의 기본가정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⑵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 관련성 연구모형

(모형-2)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Std\text{-}BTD_{i,t}$)

$$= \alpha_1 + \beta_1 \underline{\text{기업지배구조 수준}}(CGI)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beta_5 GRW_{i,t}$$
$$+ \beta_6 CFO_{i,t} + \beta_7 BIG4_{i,t} + \beta_8 OWN_{i,t} + \beta_9 FOR_{i,t-1} + \beta_{10} OD_{i,t} + \beta_{11} DCF_{i,t}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_{i,t}$$

모형-2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이다. 독립변수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시한 지배구조 평가등급 점수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전체 상장기업을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에 따라 8등급[10]으로 분류하여 공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등급부여 현황을 고려하여 표본의 점수를 적절히 안분하고자 최우량부터 양호+까지를 5점, 양호부터 보통을 3점, 취약부터 매우취약까지 1점을 부여하였다.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박승식 등(2006)에서 제시한 실질 법인세부담액[11]을 과세

10) 최우량, 우량+, 우량, 양호+, 양호, 보통, 취약, 매우취약으로 8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1) 박승식 등(2006)에서는 실질부담세액을 가지고 산출세액의 계산구조로 역산하여 실질부담세액이 반영된 과세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지상현 2013).

소득 추정치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지난 3년 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표준편차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총자산성장률(GRW), 영업현금흐름(CFO), 대형회계법인여부(BIG4), 대주주지분율(OWN), 외국인지분율(FOR), 사외이사비율(OD), 이월결손금여부(DCF) 그리고 연도더미(YEAR)와 산업더미(IND)이다. 다음 표-2는 본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연구가정의 검증

< 표-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Std-BTD	3년간 "법인세차감전손익-실질법인세부담액" 의 표준편차
재량적 발생액		KDA	Kothari 등(2005)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 측정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CGI등급	최우량부터 양호+까지를 5점, 양호부터 보통을 3점, 취약부터 매우취약까지 1점 부여.
통제변수	기업규모(SIZE)		Ln(총자산)
	부채비율(LEV)		총부채/총자산
	총자산순이익률(ROA)		당기순이익/연평균총자산
	총자산성장률(GRW)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기초총자산]
	영업현금흐름(CFO)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대형회계법인여부(BIG4)		외국 제휴 대형회계법인 감사 시 1, 그렇지않으면 0.
	대주주지분율(OWN)		대주주1인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외국인지분율(FOR)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사외이사비율(OD)		전체 이사 수 / 사외 이사 수
	이월결손금여부(DCF)		이월결손금 존재 시 1, 그렇지않으면 0.
	연도더미(YEAR)		각 연도별 더미변수
	산업더미(IND)		각 산업별 더미변수(7개의 산업으로 구분)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회계정보의

$$\text{과세소득①} = \frac{\frac{\text{부담세액}}{1.1} - \text{기준과세표준} \times \text{기준과세표준이하세율}}{\text{기준과세표준초과세율}} + \text{기준과세표준}$$

(부담세액=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대)

질 대리변수로 그 유용성이 있는 지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표-3은 재량적 발생액을 토대로 발생액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 간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이다. 재량적 발생액이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T-test 결과를 토대로 계속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표-3.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T-test 결과>

		재량적 발생액	
		큰 집단	작은 집단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평균	.033	.027
	p	.004	
	F	23.696	

다음 표-4는 연구모형-1을 토대로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간의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큰 경우에 재량적 발생액이 크므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회계(이익)정보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4.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회귀분석 결과[12] >

	KDA		
	계수	t	p
Std-BTD	.033	2.217	.027*
SIZE	.003	.068	.946
LEV	-.186	-3.793	.000**
CFO	-.603	-13.405	.000**
OWN	.050	1.172	.242
FOR	.048	.988	.324
OD	-.048	-1.119	.264
DCF	-.027	-.618	.537
YEAR	포 함		
IND	포 함		
adj.R^2	.326		
F	56.898		
VIF Max	1.436		

12) VIF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기술통계량

다음 표-5는 연구표본의 기술통계량이다. 본 연구표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약 77%의 상장기업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며, 약 15%의 상장기업이 양호부터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약 8%의 상장기업만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연구표본의 부채비율(LEV)은 약 51.6%,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약 2.7%, 총자산성장률(GRW)은 약 14.4%, 대형회계법인(BIG4)에서 감사받은 기업은 약 70.4%, 그리고 대주주지분율(OWN)은 약 40.0%, 외국인지분율(FOR)은 약 8.7%, 사외이사비율(OD)은 약 19.4%, 그리고 이월결손금(DCF)을 보유한 기업은 약 61.5%로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 연구표본의 평균값과 중위수값의 차이가 표준편차를 고려했을 때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회귀분석을 위한 정규분포 가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표-5. 기술통계량 >

변 수	평균	표준편차	MIN	중위수	MAX
Std-BTD	.031	.027	.000	.023	.184
KDA	.012	.075	-.208	.013	.227
CGI	1.608	1.202	1.000	1.000	5.000
SIZE	26.021	1.530	22.977	25.791	30.248
LEV	.516	.249	.021	.522	1.240
ROA	.027	.073	-.255	.028	.298
GRW	.144	.183	-.536	.113	.775
CFO	.035	.080	-.224	.034	.297
BIG4	.704	.456	.000	1.000	1.000
OWN	.400	.169	.000	.399	.900
FOR	.087	.104	.000	.042	.446
OD	.194	.121	.000	.200	.600
DCF	.615	.452	.000	1.000	1.000

변수정의 : <표-2> 참조

4.3 T-test 결과

다음 표-6은 가설검증에 앞서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의 차이를 검증한 T-test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양호이상인 기업들이 미흡이하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 표-6.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T-test 결과>

		Std-BTD		
		평균	p	F
CGI	양호 이상(N=344)	.027	.005	24.539
	미흡 이하(N=1,531)	.031		

4.4 상관관계 결과

다음 표-7은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다른 실험변수 또는 통제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이변량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수준(CGI)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상관관계 결과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표-7. 상관관계 >

	Std-BTD	CGI	SIZE	LEV	ROA	GRW	CFO	BIG4	OWN	FOR	OD
CGI	-.066**	1									
	.004										
SIZE	.058*	.555**	1								
	.013	.000									
LEV	-.003	.105**	.073**	1							
	.913	.000	.002								
ROA	-.011	.104**	.171**	-.274**	1						
	.639	.000	.000	.000							
GRW	-.094**	.063**	.102**	.338**	.131**	1					
	.000	.006	.000	.000	.000						
CFO	-.056*	.119**	.179**	-.177**	.483**	-.079**	1				
	.015	.000	.000	.000	.000	.001					
BIG4	.047*	.194**	.388**	-.029	.163**	.005	.121**	1			
	.040	.000	.000	.207	.000	.845	.000				
OWN	-.029	-.056*	.015	-.162**	.103**	-.124**	.105**	.054*	1		
	.217	.015	.510	.000	.000	.000	.000	.020			
FOR	-.056*	.275**	.441**	-.128**	.152**	-.046*	.144**	.237**	-.061**	1	
	.016	.000	.000	.000	.000	.045	.000	.000	.009		
OD	-.036	-.229**	-.124**	.043	-.073**	.019	-.026	.010	-.072**	-.006	1
	.123	.000	.000	.061	.002	.420	.259	.664	.002	.811	
DCF	-.139**	.059*	.024	.114**	.002	.096**	-.040	-.024	-.012	-.067**	-.096**
	.000	.011	.290	.000	.928	.000	.084	.295	.589	.004	.000

주1) *, ** 상관계수는 0.05,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주2) 변수정의 : 표-2 참조

4.5 가설검증 회귀분석 결과

다음 표-8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1]은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양호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여 지배구조 수준의 양호여부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양호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1% 유의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2]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3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각 그룹에 양호+ 이상이면 5, 보통이상 양호이하면 3, 취약이하면 1을 부여한 지배구조 수준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양호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1% 유의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적 장치(기업지배구조 등)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그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이익)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일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표-8.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 >

Std-BTD = α + β(기업지배구조 수준) + Control Variables

		Std-BTD					
		[모형-1]			[모형-2]		
	기대부호	계수	t	p	계수	t	p
CGI	-	-.124	-4.651	.000	-.146	-5.240	.000
SIZE	+/-	.181	6.043	.000	.202	6.518	.000
LEV	+	.040	1.442	.149	.042	1.505	.132
ROA	-	.065	2.283	.023	.067	2.379	.017
GRW	-	-.138	-5.464	.000	-.138	-5.466	.000
CFO	-	-.093	-3.467	.001	-.092	-3.432	.001
BIG4	-	.037	1.507	.132	.034	1.399	.162
OWN	+/-	-.060	-2.599	.009	-.064	-2.776	.006
FOR	-	-.118	-4.554	.000	-.119	-4.584	.000
OD	-	-.060	-2.544	.011	-.063	-2.675	.008
DCF	-	-.147	-6.440	.000	-.147	-6.436	.000
상수항			-3.244	.001		-2.986	.003
YEAR, IND		포함			포함		
adj.R^2		.064			.067		
F		9.028**			9.416**		
VIF MAX		1.819			1.932		

주1) *, **는 0.05,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주2) 변수정의 : 표-2 참조

4.6 추가분석 결과

한편, 대체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닌)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추가분석에서는 연구표본을 기업규모에 따라 5분위 한 뒤 기업규모 상위 1/5, 중위 1/5, 하위 1/5 표본별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9는 기업규모에 따라 5분위한 각각의 연구표본을 토대로 추가분석한 결과이다.[13] 첫째,

첫째, 기업규모가 상위 1/5 그룹에서는 기업규모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의 질일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규모가 중위 1/5 그룹에서는 기업규모와 기업지배구조 수준 모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기업규모 하위 1/5 그룹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그룹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추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및 유용성은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에서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9>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Std-BTD = α + β(기업지배구조 수준) + Control Variables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								
	기업규모 상위 1/5			기업규모 중위 1/5			기업규모 하위 1/5		
	계수	t	p	계수	t	p	계수	t	p
CGI	-.182	-2.802	.005	-.024	-.556	.579	-.018	-.359	.720
SIZE	.101	1.537	.125	-.067	-1.329	.185	-.133	-2.544	.011
통제변수	포 함			포 함			포 함		
Adj.R^2	.167			.378			.244		
F	5.716			15.184			8.537		

주1) *, **는 0.05,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주2) 변수정의 : 표-2 참조

13) 한편, 기업규모의 통제를 위해 연구표본을 기업규모에 따라 1~10 그룹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1~10의 값을 임의로 부여한 간격척도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또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윤경과 김영철(2012)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익정보의 불확실성의 대리변수로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회계(이익)정보의 질 대리변수로 활용하되,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의 효과 및 유용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본가정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요소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회계이익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인 경우 더욱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가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로써 그 신뢰성 및 유용성이 있는 지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측정에 있어 과세소득의 측정(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측정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 중 어떤 요소(제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를 통제한 추가분석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들의 다른 특성요인으로 인한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좀 더 정교한 방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강주훈. 2010. 기업지배구조와 보수적 회계. 경영사학 (제25집 제2호): 197-213.

권순창, 김형국, 박상수. 2007.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세부항목과 이익조정의 관련성.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699-722.

김문태. 2004.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이익관리의 크기와 방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2권 제4호): 85-111.

김문태, 위준복. 2005. 익관리와 법인세부담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40권): 71-92.

김정옥, 배길수. 2006.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177-202.

이윤경, 김영철. 2012.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차이의 변동성과 자본비용.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117-140.

박승식, 장지인, 정길채, 배성태. 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213-241.

박종일.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 135-172.

박종일, 김경호. 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 2호): 81-115.

윤성만, 최원석, 정형록. 2009.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341-372.

윤승영, 정재규. 2015.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ESG FOCUS.

이승태, 이윤원. 2008. 이익구성요소의 보수주의 측정에 관한 연구: 무조건보수주의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6호): 2475-2501.

이효익, 문상혁. 2004.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보고이익의 질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04년 동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이균봉, 지상현, 류예린, 2012a.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와 기업설명회 관련성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1-32.

이균봉, 지상현, 류예린, 2012b.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 관련성 :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집): pp.153-182.

이균봉, 지상현, 류예린, 김세진. 2014.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4권 제3호) : 21-38.

주인기, 최원욱, 염지인. 2005. 이익조정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

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237-275.

전규안,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107-135.

전규안, 최종학, 박종일. 2004.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143-177.

지상현. 20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회계・공시전문인력이 이익조정, 조세회피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최현돌, 윤재원. 2006.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 145-174.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6.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August): 357-400.

Mills, L. and K.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1－19.

Peasnell. K. V., P. F. Pope & S. Young 1998. Outside Directors, Board Effectiveness,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Lancaster University.

Phillips, J., L.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2): 491-521.